

# 감리 부실했나…콘크리트 균열 수십개가 0.2mm로 일정?

광주대표도서관 감리보고서 보니

붕괴 사고가 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철골 구조물(트러스) 용접 불량, 콘크리트 균열 등 문제가 이어지는 와중에 부진한 공정률을 메우겠다며 '속도전'까지 이뤄진 정황이 담긴 감리보고서가 공개됐다.

감리보고서는 또 철골 구조물부터 보, 콘크리트 타설 공사까지 모든 공정을 '적합' 판정하고 수십 개의 콘크리트 균열도 0.2mm 일정한 크기로 적어 현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광주일보가 입수한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와 감리단은 지난 10월 작성된 보고서부터 "공사중지해제 이후 공사관리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부진공정 만회 대

붕괴 지점 철골 구조물·콘크리트 타설 공사 검사서 모두 '적합' 판정  
광주시·감리단, 부진 공정 만회대책 요구…공기 맞추려 속도전 정황  
전문가 "균열 발생 자체가 정상적인 시공 아냐…원인 추가 검토 필요"

책'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단은 보고서 종합 의견으로 "열람실 옥상 및 1, 2층 타설 공정이 부진한 상태"라며 "부진공정만 회대책을 수립했으나, 인력 및 장비 투입이 원활치 못해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공기를 맞추기 위해 '속도전'을 벌일 수 있는 정황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감리단은 또 도서관 붕괴 사고 지점의 철골 구조물과 콘크리트 타설 공사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부실 감

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감리단은 지난해 4월 28일 사고 지점인 철골 3구간(X3~X4)의 철골구조물을 세우기 및 조립, 볼트세 결, 용접 시공 등을 검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X3~X4구간은 도서관 건축 현장을 4개 구간(X1~X2 구간부터 X4~X5 구간까지)으로 나누었을 때 3번째 구간을 가리킨다.

인접한 X2~X3 구간에서는 시공 직후 용접 불량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월 27일자 건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일지를 보면,

"철골 2구간(X2~X3)에서 비파괴검사(초음파탐상) 검사 결과 Y2열 용접불량 2개소, Y1열 용접불량 4개소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도서관 건물은 마치 교량처럼 두 개의 평행한 삼각형 트러스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그 사이를 가로 보로 잇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이 중 Y1열은 남쪽, Y2열은 북쪽에 있는 트러스 철골 구조물을 가리킨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 균열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감리보고서의 '콘크리트 균열 관리대장'에는 지난해 11월 지하 1층 벽체와 바닥에서 두께 0.15~0.25mm, 길이 1.6~2.5m의 균열이 13곳 발생했다고 적시됐다. 지반층 1층 바닥에서도 두께 0.2mm, 길이 2.4~3.2m의 균열 10개가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며, 균열 폭이

0.25mm까지 커졌다는 것은 통상 위험 판단 기준인 0.3mm에 근접한 수치로,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반층 1층 바닥의 경우, 수십개 균열이 0.2mm 두께로 균열하게 발생했다고 적힌 점에서 자료가 왜곡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안전교수단 산업안전지도사는 "애초 균열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정상적인 시공 상태는 아니다. 균열이 0.2mm 두께로 일정하게 발생했다고 적힌 것은 자료 조작까지 의심케 한다"며 "균열의 진행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하더라도 단순 수축 균열인지, 구조물 슬래브가 하중으로 인해 처지거나 휘면서 생긴 구조적 균열인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전남대병원, 랜섬웨어 공격 받아…영상 판독 등 불편

엑스레이 등 원격 확인 못해  
수술·진료는 정상적 진행

전남대병원이 내부 전산망에 랜섬웨어(ransomware) 공격을 받으면서 영상판독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현장 불편이 빚어졌다.

2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남대병원 본원을 비롯해 전남대치과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등 4개 병원의 PACS(의료영상 저장·전송 시스템)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랜섬웨어는 루머(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핵심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를 말한다.

이로 인해 의료진이 엑스레이(X-ray)나 MRI 영상 등을 진료실 등에서 원격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직접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다만 EMR(환자기록관리 전자시스템) 등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어 수술과 진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은 내부 공지를 통해 "임직원의 컴퓨터가 부팅 시 로그인되지 않거나 랜섬웨어 감염이 의심

될 경우 전원을 끄지 말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차단한 뒤 정보보호팀에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병원 측은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4개 병원 홈페이지도 한때 차단했다가 복구했으며, 교육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전남대병원 관계자는 "응급 수술 차질 등 환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감염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6시 현재 대부분 복구가 완료돼 이날 중 시스템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 강진군 '학폭 가수' 출연 취소 미적…항의성 민원 빗발

강진군이 공유재산을 무책임하게 관리 했다는 비판에 이어 강진정자축제에 '학폭 가수'를 출연시키려고 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군이 충분한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정책을 추진하다 자칫 지역 이미지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군은 26일 강진정자축제 초대가수 황영씨의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논의를 오는 2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군은 황씨의 출연여부 재검토를 위해 축제주진위원회 위원들을 소집하려고 했지만 과반수 인원이 참석하기에 일정상 어려움이 있어 현재 논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군은 "대행업체와 소속시간 계약관계가 얕혀 있어 신중하게 각 조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며 추진위원회 논의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식 입장장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황씨의 팬클럽 회원수가 6만

출연 여부 결정 논의 28일로 연기  
"팬클럽 6만명, 기대심리" 분석 속  
자칫 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 지적

명에 달하는 만큼, 팬덤이 몰려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때문에 군이 황씨를 쉽사리 놓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은 지난 15일 이미 대행업체를 통해 소속사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는 점에서 출연을 취소할 경우 지출한 계약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체 섭외,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경우 군의 세금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의 대처가 늦어지면서 지역민들의 항의성 민원도 빗발치고 있다.

지난 25일 군청 자유게시판에는 "이 사태를

언제까지 시간 끌며 검토할 거냐. 회피하는 거냐",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콘서트 여는 건 누구도 말릴 권리란 없지만 지역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축제는 완전히 다르다. 폭력자를 섭외한 기준이 뭔지 명확한 답변과 추후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재발 방지를 할건지 군민들에게 납득시켜라"는 등 내용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강진군 관계자는 "사회적 통념과 사안에 대한 인식을 살피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일단 오는 28일 위원회를 열기 위해 전체 27명의 참석 여부를 확인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통해 군민들이 이 바라는 결과를 최대한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축제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는 트로트 가수로, 학창시절 금품 갈취 및 폭행을 했다는 학교폭력 의혹과 데이트 폭력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관련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하고 지난 2023년부터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서식대 인근 바위 "쿵" 무등산국립공원 서식대 인근 1t 가량의 화강암이 떨어져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화강암 낙석은 최근 내린 눈으로 절리 사이의 토사층에 힘수비(흙에 함유된 물의 질량)가 높아져 접착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낙석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국립공원공단 제공〉

## 광주지법,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던 한국건설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광주지법 파산1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지난 21일자로 한국건설 회생계획안 인가 공고를 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한국건설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데 따라 회생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한국건설이 변제할 채권액은 총 2129억원으로 결정됐다. 채권자는 국세청, 지자체들, 은행, 하정업체 등을 포함해 2816명이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을 통해 추후 여러 건설업체들과 협작(건조사업)해 신규 수주 또는 관급공사를 주는 등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또 한국건설은 비업무용자산 등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는 등 방식으로 채권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1984년 설립된 종합건설업체 한국건설은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99위(2883억원)를 기록한 중견기업으로, 부채 2820억원을 갚지 못해 지난 2024년 4월 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종-166683호]

[광고]

##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 무릎 관절

#### 인공관절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틀방수, 리모델링

###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장 광주시 서구 서창2길3(서창동)